

# 酪農學 教育의 반성과 과제

姜 禧 信  
(慶尙大 酪農學科)

## 1. 緒 論

본래 부탁받은 본고의 주제는 오늘의 낙농학파에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겠으나, 필자의 견해로는 우리나라 농과대학의 전 과정에 대한 언급 없이 낙농학과의 오늘과 내일을 논할 수 없기에 농학교육 전반에 걸친 원론적 사항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농과대학의 교과과정이란, 보는 이에 따라 견해차가 있을 것이나, 낙농학과와 같은 동물농업-축산 또는 낙농-관련 교육만큼은 근본적인 문제, 즉 교육과 훈련이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된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교육이란 훈련을 내포하지 않는다고 할 사람이 있겠지만, 교육(education)이란 'the knowledge and ability gained by such training' 을 의미하며, 훈련(training)이란 'through instruction and ability along some special line' 이란 의미에서 양자를 구분지어야 하는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교육과 훈련이란 두 날개(?)는 언제 어느 때나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고, 만일 이 두 날개가 제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 어느 한쪽 날개만으로는 낙농학이라는 산업관련 교과를 이수하였노라고 할 수 없

고, 결국 단독비행은 불가능한 것이다.

## 2. 農學教育의 현실과 그 특성

한 인간의 교육이란, 그 교과과정이 목표하는 교육을 받고 나서도 교육을 받기 이전의 행위를 벗어던지고 변모된 행위를 할 수 없다면, 그 교육에 투자된 정력, 시간, 경비 등의 모든 것은 낭비에 지나지 않으리라. 설사 낭비까지는 아니라 하여도 그 투자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겠다.

전국 이래 우리나라에 설립된 농과대학 교과과정의 변천을 시종 분석해 온 인사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대개가 강의 일변도의 교육만이 주로 수행되었으며, 훈련까지 수행되어 왔노라고 자신할 수 있는 교수는 흔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실사 많은 교수들이 자기 영역 교과의 실험실습 등을 수행하였다든 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수 개인에 의한 시범적 수행에 지나지 않았을 뿐, 개별 학생에 의한 스스로의 사고와 행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된 실험실습이나 훈련은 아니었던 것으로 반성된다.

왜냐하면 현업 직분에 종사하는 각급 공무원

이나 관계 실무자들 사이에는 “축산 기술자도 기술자인가?”라는 자학적인 평판이 있음을 알고 있으며, 과거 30여 년간 교단에서 있었던 필자로서는 과거와 현재의 학부과정 학생들에게 한 학기라도 강의와 실습 훈련을 ‘흡족’하게 수행하였노라고 자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유없는 무덤이 어디에 있을까마는 따지고 보면 내 자신도 그렇게 배워 왔으니, 내 학생들에게마저도 내가 전수받은 것 이상의 것을 더 가르칠 수 없지 않겠는가 하며 자위하였음이, 마치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신세’인 양 싫어 서글픈 마음 탈릴 길 없다.

설령 외국의 정규대학 및 대학원의 과정을 이수한 교수들이 바람직한 시도를 하더라도 얼마 못 가서 오히려 현실적 풍토에 젖어버리게 되고 불만 속의 나날을 지새는 신세가 되지 않았는가 싫어 서글퍼진다.

건국 이래 반세기를 지나면서, 각 도마다 거의 빠짐없이 설립된 농과대학은 오늘 현재 국·사립 합해 어느덧 32개를 헤아린다. 하지만 이토록 많은 4년제 농과대학의 출신들이 자기 전공분야와 관련한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이 적다는 사실보다는, 소수일지라도 전공과 유관 직종에 종사하면서 ‘이론과 실기를 중흥으로 구사할 수 있는 또는 그렇게 되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굳이 외면하려 하지 말자는 것이다.

’70년대 초반부터 대학교육 행정이 ‘실험대학 돌풍’에 휘말리고, 졸업 소요 160학점이 140학점으로 하강된 이래, 최근에 이르러 계속 강조되고 있는 교양과목 학점 배정의 증가 추세는 자기 전공학과의 필수과목 및 전공 선택과목 모두 합해서 60학점 20개 과목을 이수하면 일단 졸업 소요학점을 충족하게 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특정학과 졸업자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갖추지 않고서도 졸업이 허가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늘의 사회가 대학에 주문하는 내용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학생을 키우시오.”라는 것이지만, 그 제도적 요인 때문에 오히려 국제적 낙후성만을 양산하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오늘의 현실을 ‘누구의 탓’으로만 미루어도 옳단 말인가?

농학(업)은 그 특성상 관련 기초학문들의 응용학(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한 요소들의 조화로써 고귀한 식품을 생산하는, 어찌보면 예술과도 같은 1차산업일진대 더더욱 질 높은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훈련과정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1993년 오늘의 우리나라 살림이 ‘수출’없이 존립할 수 없도록 팽창되었고 그토록 국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호뭇한 마음 감출 수는 없지만, 평생을 귀따깝게 들어온 ‘부존자원이 빈약한 나라’에서 닥치는 대로 무엇이든지 판매 가능한 ‘상품’을 만들어야 이 국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대학교육의 산물(?) 졸업자)들이 자기 전공 유관업종에서 일할 수 있는 saleable products가 못 되는 이유는, 잘 교육되고 훈련된 사람이 없다는 사유 이외에 더 무엇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무식하고 나이들고 후계자도 없는 농민들의 힘’만으로는 드높고 거센 ‘UR’ 파도와 사회적으로 팽배되어 있는 ‘3D’의 늪을 벗어날 수도, 살아 남을 수도 없다.

대학인 농학도들이 농촌의 삶을 평생의 보금자리로 알고 스스로 찾아줄 때에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국제 경쟁력을 갖추 수 있으면만, 오늘의 고난과 빈곤에 짓눌린 사회의 부모들은 한사코 이를 반대하는 이유를 헤아려 대처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어느 영역에서나 국제 경쟁력의 확보가 보장 되려면 의기충천하고 똘똘하고 과학하는 젊은 두뇌들이 필요한데, 이들의 동참없이 오늘의 농민들만이 치르는 독대 UR 투쟁은 단지 공염불 ‘공론’이리라 믿어진다.

### 3. 酪農學 教育에 대한 반성

농업교육, 특히 대학의 축산학 및 낙농학 교육에 직·간접으로 몸담아 왔던 우리들 기성세대부터 반성하여야 한다. 지난 십수 년간 계속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젊은이들을 육성하시오.”라는 사회와 국가의 요청에 대하여 우리는 진정 얼마나 바르게 응답하였고, 젊은이와 우리 자신들의 국제 경쟁력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였는가? 너무나도 현실과 괴리된 자신을 발견하고 허탈

감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이미 이 나라의 모든(?) 이들에게 ‘농업’ 산업이 주는 매력은 티끌만큼도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아기 울음소리 끊어진 농촌—만이 아니라 32개의 농업관련 대학 중 9개 대학이 이미 ‘○○대학교 ○○대학’이라고 교명을 바꾸어야 했고, 학과의 명칭까지도 바꾸거나 종래의 농과대학을 ○○대 문리대, 산업대, 자연과학대 또는 자연자원대학 등으로 기명하여야만 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일변하는 세태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언제까지나 교육의 내용은 바뀌지 않은 채 눈가리고 ‘아웅’만 하면 되는 것인가?

세계 대학의 교육이 의무교육은 아니련만, 우리나라의 경우만은 유독 사정이 다른 것 같으니 웬 말인가? 매년 입학정원을 초과해서 몰려오는 대입 지망생들 덕분에 이렇게 자신이 교수로서 존재할 수 있었지만, 오늘의 대학은 이러한 당면 과제들에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반성해 보자.

첫째로 ‘교육자원 부족’으로 부수되는 고통을 치르지 않아도 좋았고, 둘째로 대학 당국이 참으로 인정받는 전문인 교육에 필수적인 교육 설비 및 장비, 인력 등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한 자금 투자에 인색하여도 오인불관하였으며, 셋째로 4년의 기간중 학생들이 졸업하기까지에 지나야 할 자질 또는 품성의 내역(specification)을 검토·갱신할 필요가 없어서 더 좋았던 것은 아니었는지 등의 부정적 지탄을 던질 수 있을 것인가 반성해 보자는 것이다.

에세 밤낮으로 공부하고, 수 명의 경쟁자를 따돌리고 대학 입학의 영광을 안았던 젊은 학생의 바람은 어떠하였나 반성해 보자.

첫째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보다 쉬운 일만을 택하고, 둘째로 전공과목의 내용보다는 대중 학점만 따서 졸업할 수 있으면 좋고, 그러나 성적만은 높은 점수이어야 하며, 셋째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나요?”, “내가 가는 길은 저 길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만 손에 쥐는 것만이 관심사라는 것이고, 넷째로 “세상이 다 그러는데, 왜? 선생님

은 따분하게만 사시는가요?”와 같은 풍토병(?)을 의미하지 말자는 것이다. 우리 주변의 세상이, 거드랑이에 이토록 쉬(?)가 슬었는데도 우리는 손톱 밑의 가시만을 아파하면서 참다운 모습 보기를 꺼려하고 의면하면서, “나는 못 보았으니까” 한마디로 귀와 입마저도 봉쇄버리지 않았는가 싶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태평성세?’—최소한 유유자적하면서—를 누리고 있었음을 감히 지적하면서 모두 깊은 반성의 삶을 살자고 권해보는 것이다.

물론 과거의 정권하에서 젊은이들의 현실참여로 인한 아픔도 겪어야 하였지만, 대학의 졸업자들을 공산품과 같은 차원의 양산 체제 방식으로 배출하는 오늘 이 시대에서는, 이른바 ‘교육 소비자 보호개념’과 같은 교차원(?)의 소망을 갖는 것조차도 혁명적 발상이라고 거부받을까?

우리 모두는 일상의 생활에서 이웃과 거래없이 살지 못한다. 적정한 정가의 금액을 지불하고 구입한 가구가 쉽게 탈이 났을 때, 제조원으로부터 A/S를, 제품의 교환을 또는 아예 타품목의 교환을 요구·주장하는 소비자 단체마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공산품의 질 향상에 강력한 의압이 작용되고 있음을 안다. 그런데도 유독 학교와 학부모(학생) 간에 이루어진 계약(?)만큼은 A/S가 필요없다는 사실은 君師父一體思想 때문인 맹종인가 순종인가? 아니면 포기인가? 무엇이란 말인가?

십수 년에 걸쳐 입시에 응하는 젊은이들의 말! “하필이면 왜 본과를 지망하였나?” 하는 물음에 한결같은 반응은 ‘성격대로’가 아니면 ‘교과 담임교사의 뜻을 따라서’라고 답하는 지조파(?) 젊은이들의 행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꼈고, 또 어떻게 대응 조치하여 왔는지?

우리 자신들이 이제 농과대학 낙농학대에 입학하여 신입생이 된 마음으로 어떻게 대접받던 교육 소비자로서 만족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첫째로 특정학과의 대학생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고, 아무 대학 아무 학과라도 우선 합격이나 되고 보자는 ‘학생자원’만을 모아 놓고, 둘째로 어찌다 보니까 오늘의 전공학문 학위를 다

른 이보다 먼저 취득하여 운 좋게 오늘의 지위를 누리며, 셋째로 강의만이 전부인 양, 반쪽 학습(실습이나 훈련이 없는)만을 유지·관리하기에 급급하였던 필자와 같은 자질로서, 넷째로 도매체 어떤 자질(specification)의 소유자들을 육성할 수 있었다는 것인지 진정 반성해 보자는 것이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 분야에서 평생을 후진양성에 투신하는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① 낙농학과 낙농산업을 위하여 평생을 바쳐 투신하겠노라 작정하였던 젊은이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안겨 주어 왔으며, 자기 전공의 희망을 버리도록 방치하여 왔는가?

② 점수따라 입학하였던 많은 젊은이들에게 더욱 낙심만을 안겨주지 않았는지?

③ 얼마나 많은 이들이 마음을 돌려 먹고 전공학문 내지 전공산업 분야에 투신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는가?

④ 진정으로 대학이 한국의 낙농산업의 오늘과 내일을 위하여 필요한 일꾼들을 키우기 위하여 참다운 농업(학) 교육의 장을 마련하였는가?

⑤ 의학교육이라고 해서 더 열심히 하여야 하고, 농학교육이라고 해서 대충 대충 얼버무려도 되는 것인지? 인명을 직접 다루는 의사를 교육하는 일이니 철저해야 하고, 기껏해 보아야 간접적으로 인간의 식품을 생산하는 분야에 종사할 일꾼을 키우는 일이니 대강 철저하여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리의 굳어버린 사고부티 교정하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다고 하겠다.

무릇 인간의 교육이란, 교육을 통하여 “인간의 자아 실현, 즉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알고 사

리를 제대로 분간하여 바르게 처신할 수 있는—행동의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키고—인간이 되게 하는 일”이라고 정의한다면, 오늘의 대학교육이 과연 이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분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왔단 말인가? 신과 악, 정과 사, 시와 비, 곡과 직, 진과 위, 우와 열을? 아니면 진정으로 가르친 것이 무엇이었던가? 반성하자는 것이다!

#### 4. 現況과 問題點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종합대학의 단과대학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낙농학과는 근년에 이르러 '70년대의 건국대, 전남대, 경상대, 경북대 등 4개 대학 시절보다 양적으로 비대 팽창되었음을 알게 된다. '80년대에 이르러 국립대로는 강원대, 충남대, 사립대로는 성균관대, 전주우석대, 삼지대, 연세대 등 6개교를 합해 10개 대학이 각각 30~40명 정원의 낙농학과를 설치·운영하기에 이르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의 10개 대학에 각각 학생 40명씩의 정원이라고 하여도 매년 400명의 졸업생이 사회에 배출되는 셈이다. 국립대와 사립대의 교수수는 3:2의 비로서 국립대의 경우 교수 1인당 26명, 사립대의 경우 40명의 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 사립대 교수의 경우 국립대 교수보다 1.5배의 학생을 감당하여야 한다.

어느 한쪽은 분명히 잘못된 것임에도 교수들은 병어리가 되고 만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표 1> 낙농학 및 유사학과의 현황

농과대학 및 낙농 축산관련학과	국립대수(교수수) 학생수			사립대수(교수수) 학생수		
농과대학 설치대학수 및 교수수	11	(118)	691	11	(83)	685
낙농학과 설치대학 및 교수수	5	(31)	190	5	(20)	205
① 낙농학과 단독 설치대학	1	(7)	35	3	(11)	120
② 낙농+축산 병치대학	4	(24)	155	2	(9)	85
축산학과 및 비낙농 타학과	7	(69)	381	7	(57)	640
③ 축산학과 단지대학	6	(48)	226	5	(25)	195
④ 축산+비낙농 타학과 병치대학	1	(26)	190	2	(32)	240

어찌할 것인가? 엄두도 못내던 옛날 같이 두루 뭉실 살아가는 수밖에 없을까?

각 대학에는 낙농학과 설치 이전부터 있었던 축산학과 이외에도 축산 관련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축산대학의 경우까지 고려하면, 낙농학과 이외에도 전국에 30개의 관련학과가 있어서 매년 전국에는 국립에서 720명, 사립에서 880명 등 1,600명의 축산관련 인재가 배출되는 셈이다.

1992년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 젓소사육 농가호수는 27,965호, 사육두수는 514,877두로 계수되었지만, 현재의 농가수는 줄잡아 22,000여호, 사육두수는 520,000두 안밖으로 사육농가의 감소 추세와는 반대로 유지 또는 상승되는 현상이다.

세계적인 추세가 젓소 사육 농가수 및 젓소사육두수는 감소되지만, 개체의 산유능력 향상으로 산유량이 증가되는 상황이라면 현 수준의 축산관련학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 대국적인 면에서 낭비를 감당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인구도 불어나고 국토도 좁은 처지이면서 외국의 값싼 제품이 '97년 이후부터 완전 개방된다는 증압이 건디기 어려운 처지임을 알면서도, 미리미리 현명한 대책을 범국가적으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어찌하는 것일까?

요컨대 양적 팽창만을 일삼던 과거를 청산하고 하루바삐 국가의 인력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질 위주의 소수정예들이 즐겨 공부할 수 있는 농과대학 낙농학과가 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가능한 각종 조치를 마련하는 편이 옳은 판단일 것으로 사료된다.

제자와 후배들에게 꿈을 심어 주어야 할 현역 교수로서 마련한다는 대책이 고작 축소지향적 자피적 제안(?)을 남기는 것 같아서 어찌보면 '배반자' 같지만, '天下之大本'이란 낭비적 요소를 생산적 요소로 전환하는 곳에 있는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현재와 자기 안일만을 위하여 명약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먼저 들어선 길이 잘못된 궤도라고 확실하게 판단된다면 과감하게 궤도수정을 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며 전진이 아닐까 사료되기 때문이다.

금후의 세계 경제가 언제까지나 오늘의 상황이 아닌 것처럼, 1차 산물에 대한 자원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게 될는지 장담할 수 없겠지만, 우리 모두는 최소한 소위 '자원보존적 차원'에서의 '기술의 축적과 혁신'을 위한 '미래지향적 연구'를 위해서도 현 제도의 궤도수정을 위한 연구라는 국가적 과업에 시동을 걸어야 할 시기라고 하겠다.

## 5. 教科課程

전술한 바와 같이 꿈도 없이 막연하게 선택하여 입학한 학생들에게 1차산업인 우유생산 관련 학문을 잘 이수토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배려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① 우리 기성세대는 과연 '낙농학을 배우는 일에서 즐거움을 갖도록' 무슨 보따리를 마련하였는지? 또 그 패키지는 효과적이었는지?

② 학생과 교수가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일에서 참으로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찾을 수 있으련만, 오늘 이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교과목의 내용들은 과연 걸맞는 것인지, 아니면 교수 위주의 학과목 나열이었던지?

③ 우리는 이 교과목의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분석·비판하며 개선하고 있는지?

이러한 점들을 반성하기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대학의 낙농학 교육과정을 검토할 수 있는 기구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오늘의 교과과정은 위인실강식 내지는 학교의 경영만을 고려하던 시절에 이루어졌으며, 그 후에도 지역 및 국가 산업의 여건에 합당한 교과과정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왜냐하면 '집이 곧 법'이기에 어느 대학도 대학간, 교수 상호간의 교과 분석 연구를 위한 모임을 시도한 노력의 흔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 1) 1학년 과정 내용의 검토

전국의 각 대학 낙농학과의 1학년 설강 교과목 수는 24개 과목으로, 이 중 전후 학기에 각각 15개 과목씩 30개 과목이 나열되어 있다.

신입생들에게 대체로 학과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기 위한 낙농학개론 또는 축산학개론 등의 과목이 7개 대학에서 전학기에 집중적으로 설강된 것은 좋은 보기라고 하겠으나, 목장실습 또는 현장기본실습이란 과목으로 신입생들에게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한 대학이 불과 2개 대학에 국한되어 있는 점은 매우 아쉬운 사정이다. 필히 남의 나라 사정을 예시할 필요는 없겠지만, '70년대 덴마크 왕립 농대의 낙농학과의 학제는 5년제이었으며 입학과 동시에 현장에서 1년 동안 땀흘리면서 장차 사기가 평생의 과업으로 삼게 될지도 모르는 산업분야의 대강을 혼련받아야만 2학년 진급이 허락되는 제도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학 전 과정 중 초기에 적성을 분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면, 적성이 부적합한 학생들은 조기에 자진탈퇴나 타영역으로의 방향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개인이나 국가를 위해서 모두 이로울 것으로 사료되는 것이다.

솔직하게 우리 2세들에 대한 농학교육은 젊은이들에게 '인스틴트 사고'가 아닌 '자기 자신의 사고'로서 살아가도록 하는 일과, 인간 모두가 하나같이 '우두머리'일 수 없고 모두가 '꼬리'일 수 없듯이 각각의 개별 인간은 '자기의 분에 맞는 몫'의 일을 하면서 살도록 하는 철학을 심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은 것이다.

다시 한번 교육 소비자 보호 차원의 사고를 발전시켜 나가는 길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장차 1차산업 관련 학과의 교과과정은 긴 안목으로 특정 연구기구를 두고 각별한 연구에 집중토록 하여, 이른바 '폐자 부활전'을 허용함으로써 적성을 찾아 사회와 국가에 담당하게 임할 수 있는 제목들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2) 2~4학년의 전공과정 검토

대체로 전국의 대학 낙농학과에서 2학년에 설강되는 과목은 전공기초 성격이고, 3~4학년에 걸쳐서 전공 과목이 좀 더 심화되도록 배려하고 있어서 현재의 풍토에서는 무리없는 내용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의 고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학 및 실습', '○○학 실습' 등과 같은 학과목 설강에 있어서 배정

된 학점이 3학점 4시간으로 되어 있고, 주당 강의 2시간과 실습 또는 실험 2시간으로 합계 4시간이 배정되도록 되어 있는 점은 아무래도 앞에서 주장한 바 있는 소비자 보호 차원이나 혼련의 중요성에 비추어 재고의 여지가 다분히 있는 영역이라고 하겠다. 어느 대학을 꼭 짚어서 말할 것도 없이 열악하기 짝이 없는 실험 기자재 설비로는 'student bench' 개념의 실습 또는 실험을 수행할 수 없다. 즉, 교수 개인이 대학원생 실습조교(?)의 도움을 받아 실험을 수행한다고 하여도 주중 오후 또는 오전에 집중된 4시간 정도의 배정이 없이는 한 가지 토끼의 실험실습 과제마저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그것도 40명의 대가족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으며, 완만한 혼련을 쌓아서 국제 경쟁력이 함양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실험실습을 위한 제정 문제이다. 수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소요 시약과 물품의 조달을 위하여 요구되는 재원은 현재와 같은 제도하에서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학생들이 매학기 납부하는 과거의 실험실습비는 최근에 기성회비로 혼합되어 계상되고 있지만, 기성회비는 예외없이 교수와 직원들을 위한 경직성 인건비조로 70% 이상이 지출되는 현실에서, 다시 한번 국제 경쟁력의 함양이란 단지 '허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강의와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과제는 지나치게 이명 동질의 학과목이 설정되어 있다는 현실이다. 예컨대 ○○영양화학과 영양화학, 생화학과 낙농생물화학, ○○통계학, 실험○○통계학 및 연습과 ○○실험통계분석 및 실습 등이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대학에서 설강된 과목 중에 1학년에서 '개론', 2학년에서 '총론' 등등이 설강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각각의 대학사정에 따라, '○○학'의 작명기법에 따라 심홍, 담홍 또는 진홍으로 호칭되는 학과목 개설만큼은 시정될 수 없는 것인가?

요컨대 이와 같은 현상은 대학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교수 상호간의 강의 내용 실러퍼스를 조정하는 일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과감하게 '장절별 강의제'를 도입함으로써 이상한 학

과 명정보다는 명실공히 걸맞는 강의료 수행하는 방안도 성실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훈련을 위한 현재의 사정은 각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부속 동물사육장의 실태를 살펴볼 때 참으로 암담함을 발견한다.

낙농학과를 설치한 4개 국립대학의 사정은 평균 착유우, 건유우 및 초임우 사육두수가 17.7두인 데 반하여, 설문에 응답한 3개 사립대학은 평균 44.9두로서 국립대의 2.5배의 사육두수를 유지·활용하고 있다. 육성 자우들을 포함한 전체 사육두수의 평균치는 전자가 29.8두, 후자가 91.6두로 사립대가 3배나 더 많은 것소를 사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젖소로부터 우유를 착유하기 위한 설비만 하더라도 국립대의 경우 전남대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대학의 설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약한 낙농가들이 보유한 설비인 데 반하여, 사립대의 경우는 최근의 설비를 장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사립대학의 동물 사육장은 재단으로부터 수익을 올려야 한다는 압력도 받고 있을 것이지만, 최소한 학생들에게 각급 훈련을 위하여 질 좋은 자료들을 마련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라고 하겠다. 국립대의 경우 지나치게 많은 제약이 따른다. 예산회계 관련법규에 의하여 투자도 제한되지만, 수익에 있어서 확대 재생산을 위하여 활용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자칫 잘못되는 경우 국고손실에 따른 일신상의 제재와 불이익을 감당하면서까지 열심히 일할 용사가 없다는 것이다. 이대로 방치하여도 과연 옳은 것일까?

이제 약 한 달 뒤면 산업교육이 국가산업경제의 발전 운운을 목적으로 입법된 소위 산업교육진흥법(1963. 9. 10)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 이 법의 제 3조 1항에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은 재학중 일정한 기간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만 아무도 그 시행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 역시 이래도 좋은가?

## 6. 結 言

인간과 인간의 만남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좋은 부모, 좋은 세상, 좋은 교사를 만나는 일이라고들 한다. 세상에 사는 이들치고 자청해서 좋지 않은 부모, 교사 또는 세상을 만나고 싶어 할 이가 어느 하늘 아래 있겠는가?

인간의 만남을 서로의 스승처럼 이끌어갈 때 서로는 훈도가 되고, 그래서 하나의 전문인이 육성되는 것으로 안다. 훌륭한 스승 밑에서 훌륭한 인재가 훈도된다.

필자가 속한 학문 분야인 낙농학의 경우는 넓은 뜻에서 볼 때 동물농업, 즉 축산학의 한 분야이면서 양질의 영역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축산학과와 낙농학과의 교과과정이나 내용에서 ‘유사-상사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인 바, 학생들의 역량에 따라 합당한 영역의 전문인이 되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으로 믿는다.

아버지가 勝於父하는 자식을 볼 때 가문의 융흥으로 보고 기뻐하며 二世의 立志躬行만을 바라듯이, 스승의 기쁨은 勝於師하는 젊은이들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발전은 학원에 면학 열기가 가득차며 교수를 학생이 인정해 주고 사숙하게 되도록 노력하여, 코 앞에 닥쳐올 교육 소비자 보호 시대에 서 값싸고 질 좋은 외국산 식품의 상륙이 눈앞에 와 있는 이 시대에서, 각자의 지역여건에 알맞은 총체적 지역 농업 시스템 속에서 낙농산업이 살아 남을 수 있도록 힘쓰는 데 있다.

농업교육에 있어서도 “The best must teach and be taught.”라는 철저한 사고 없이 우리의 국민들에게 양질의 식품인 우유를 생산·공급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 그 누가 되었든지 한국의 농학교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인벤토리로써 과감한 재투자를 수행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